



| 하나의 길에서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구약성경의 하느님 백성들이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사건은 이집트 탈출과 광야생활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하느님을 ‘함께 있는 분’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끄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40년간의 광야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시나이산에서 맺은 계약은 하느님의 올바른 백성이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계약의 중심은 하느님께서 직접 쓰셔서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전해 준 십계명입니다. 열 개의 계명은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전해주었다는 의미도 갖습니다. 십계명 안에 담긴 것은 백성을 위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하느님의 길을 걷는 가장 바른 방법으로 여겨졌고 어렵지 않게 이런 내용을 구약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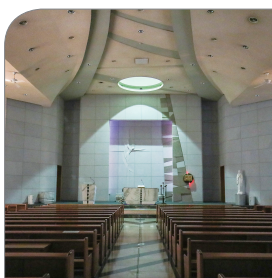
십계명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세 계명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필요한 것을, 그리고 나머지는 백성 사이에서 필요한 것을 규정합니다. 하느님과 인간 상호 간의 계명인 셈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벅했던 걸까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수난이 머지 않은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황금률이라고도 부르는 이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계명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얼핏 보면 열 개에서 두 개로, 두 개의 계명에서 하나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함께한 사랑,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고 그들이 하느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끌어 준 사랑,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준 사랑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 역시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애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결국 광야의 십계명에서 예수님의 계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 그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시대에 따라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은 시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양천성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61

양천성당은 2000년 9월 목동·신정동·고척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으며, 본당 설립 인가는 2000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해 9월 성전 가건물을 짓고 신앙공동체를 시작하여 2002년 인근 건물을 임시 성전으로 사용했습니다. 2007년 5월 ‘야곱의 사다리’와 ‘모세의 부르심’을 형상화한 대성전과 소성전을 포함하는 건물이 완공되어 입당 미사를 가졌고, 9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2009년에는 성당 마당과 애덕의 모후 동산 등을 보완하여 본당 신자들만을 위한 신앙생활의 공간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운 휴게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송파동성당 양천성당 홍은2동성당

